

“특 하면 종교시설”...코로나19 ‘이유 있는 분노’

광주, 지역 내 감염자 10명 중 4명 ‘종교 관련’ 확인
TCS 160여 명 최다...사랑제일·안디옥·BTJ까지
전남, BTJ·관음사 등 100명 육박...지역감염 11.5%
“자영업자 벼랑 끝에 섰는데” “종교가 모범보여야”

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확산세, 진정 국면 때면
어김없이 터지는 대규모 감염, 종교는 그렇게
코로나19 악순환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.

몇몇 수퍼감염원도 추적의 끝자락엔 종교모
임이 자리했고,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어렵사
리 신앙을 지켜온 동료 종교인들과 벼랑 끝에
서 삶을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들, 그리고 수 많은 시민들의 피로감과 분노는
커져만 갔다.

코로나19 정국에서 폭발한 ‘종교 불신’은 통
계가 여실히 말해준다.

31일 광주·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
2월4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
이후 종교(시설) 관련 확진자는 광주가 602명,
전남이 79명으로 합쳐서 700명에 육박한다.

광주의 경우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지역
내 누적 감염자(1783명)의 36%가 종교 관련
확진자다. 10명 중 4명 꼴이다. “특 하면 종교
시설”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
다.

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IM선교회 산하 TCS
국제학교 관련이 162명(광주TCS 120, 에이스
TCS 42)으로 가장 많고, ‘노 마스크 설교’ 전광

훈 목사로 상징되는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
심 광복절집회 관련이 118명, 안디옥교회와 꿈
이 있는 교회 관련이 86명으로 뒤를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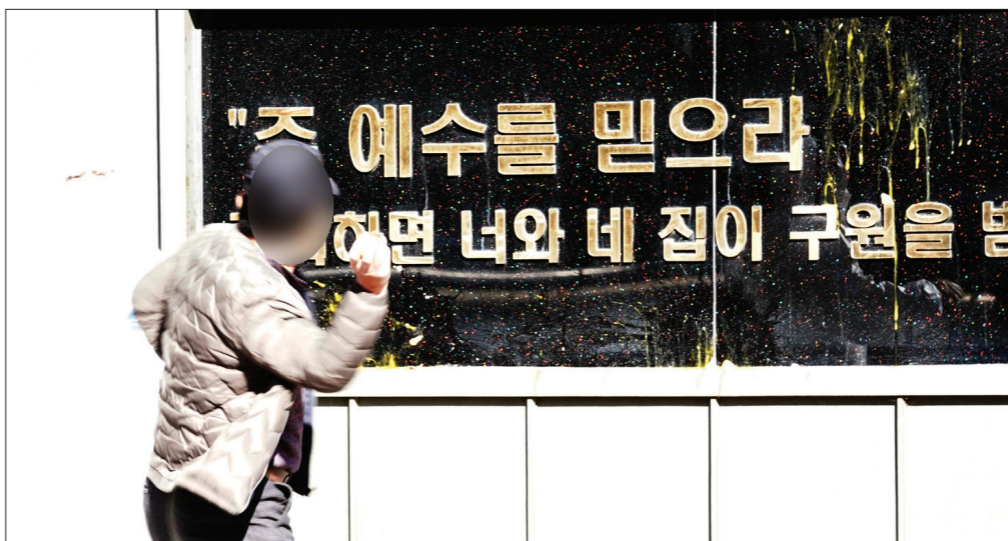
또 광주 청사교회 관련 75명, 경북 상주 BTJ
열방센터 관련 67명, 광주사랑교회 41명, 일곡
중앙교회 30명, 신천지 9명, 광복사 8명, 영암
관음사 관련 6명도 종교 관련 확진 사례들이
다.

올 들어 주요 집단 감염원 9곳 중 종교 관련
은 5곳에 달하고, 관련 확진자의 절반 이상도
종교발 감염자들이다.

전남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이 21명
으로 가장 많고, 뒤를 이어 관음사(13명, 강진
흥덕사 3명 포함), 순천·고흥·보성 교회 모임
(13명), 울산 BTJ 관련(10명)이 두 자릿수를 기
록했다.

또 ▲순천 신대중앙교회 7명 ▲TCS 관련 5
명 ▲진주국제기독교원 발 3명 ▲벌교 새생명교
회 2명 ▲부산 사도행정교회 기도회 관련 2명
▲부산 제자들과, 대전 IEM, 광주 안디옥교
회 관련 각 1명씩 등이다.

종교계를 향한 분노를 곳곳에서 분출했다.
광주 안디옥교회 인근 한 소매점 상인은 “주



지난 1월 27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광산구
광주TCS국제학교에 계란을 투척하고 있다. (사진=독자제공)

일이면 예배를 보러온 교인들의 차가 몰리면
서 교회주자장이 가득 찬다. 전혀 다른 나라 사
는 사람들 같다”며 “온 나라가 난리통이고, 자
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렸는데 저래야 쓰겠냐.
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”고 불만을 토
해했다.

밀집, 밀집, 밀폐된 ‘3밀(密)’ 환경에서 합숙
교육을 강행해온 광주 광산구 TCS 국제학교에
대한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.

한 자영업자는 “잠잠해질만 하면 종교단체
에서 확진자가 속출한다. 강력한 처벌이 필요
하다”고 주장했다. 최근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
는 계란 투척 항의도 빚어졌다.

주변 카페 사장도 “방역수칙과 영업시간을

철저하게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
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억울하다”며 분통을
터뜨렸다.

일부 종교지도자들이 공개사과하고, 방역당
국이 전체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
발동했지만 음성적인 모임과 ‘방역 불복’ 사례
도 적잖아 약효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장담
하기 힘든 상황이다.

순천시민 김모(55)씨는 “코로나19는 ‘모두가
힘든 시기’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다”며 “종
교지도자와 신앙인들부터 이웃사랑과 공동체
안정을 위해 방역수칙을 솔선해서 지켜줬으면
좋겠다”고 말했다.

기동취재본부

“현 거리두기 2주 연장” 5인 금지·9시 영업제한도 지속

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31일 “정부는 현
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
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
자 한다”고 밝혔다. <관련기사 9면>

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
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
주재하고 “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
지난 주 IM선교회(發) 집단감염에 이어
최근에는 병원, 직장, 게임장, 체육시설 등
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”
며 이같이 말했다.

이로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
당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내달 1일
부터 14일까지 유지된다.

정 총리는 “이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
린 설 특별방역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
한다”며 “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
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하겠다”고 밝혔
다.

정 총리는 “이번 방역조치를 결정하면
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
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”이라며
“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
내고 계산 유희시설 업주분들, 영업시간
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
버티고 계신 수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
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”이라
고 전했다.

이어 “하지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
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”며 “3
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
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
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
호소드린다”고 했다.

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

코로나 직격탄 맞은 화훼농가, 전남도 ‘꽃 소비 캠페인’



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꽃 판매에 어
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

다고 1월 31일 밝
혔다.

최근 코로나19
영향으로 1~2월
졸업식과 3월 입
학식 등 각종 행
사가 비대면으로
진행되거나 축소
됨에 따라 장미꽃
1단 가격이 6000원대(광주원예농협 경매가)
로 판매되고 있는 데다 한파로 인한 생산비 부

이달 말까지 꽃 사주기 운동 진행 매주 금요일 ‘사랑의 플라워데이’

담까지 걸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.

전남도는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유관기관,
기업체를 대상으로 ‘1 테이블 1 플라워’ 등 꽃
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, 매주 금요일을 ‘사랑
의 플라워데이’로 지정해 2월 말까지 총 5차례
에 걸쳐 꽃 사주기 운동을 진행한다.

또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

장터와 우체국 소포 등을 통해 판촉행사를 병
행 추진한다.

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“지난해부터
이러진 코로나19로 힘든 화훼농가 돕기에 많
은 공직자와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”며 “도
내 기업체와 민간에서 선물과 장식, 기부 등 다
양한 형태로 꽃 소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”고
말했다.

전남의 화훼산업은 764ha 면적에서 연간
6900만 본의 꽃을 생산해 132억원의 판매고를
올리고 있다. 이 중 장미는 총 54농가에서 전
국의 7.9%인 19.5ha를 재배하고 있다.

김정환 기자

본사 이전 안내

당사가 2021년 1월 30일부로
본사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.
변함없는 관심과 신뢰에 진심으로
감사드리며 본사 이전을 계기로
앞으로 더 발전되고 좋은 신문으로
찾아뵙겠습니다.

이전주소 : **광주서구 운천로 213**
스카이랜드 309호
(광주 서구 치평동 1243)

*축하 화환 등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.

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

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.

‘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’의 실천으로
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.





